

##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(2022.01월)

※ ※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교통 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(22.01.01~22.01.31)

### □ 혁신적인 항공 교통 시스템 운영[1/7]

- 국방부(Ministry of Defence)에서는 영국 군대의 항공 교통 관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을 15억 파운드의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함.
- 이 장비를 통해 컨트롤러는 터치 스크린 통신, 더 선명한 레이더 사진, 개선된 비행 정보 및 위치 지정을 포함한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행 안전을 향상시키는 상황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.
- 또한 드론 등을 통해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하여 장비를 유지 관리할 예정임.
- 안전하고 탄력적인 군용 비행작전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장비를 기존 인프라와 통합하는 것에 지원할 것임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new-air-traffic-system-operational-with-300-uk-jobs-supported>

### □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[1/12]

-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(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)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, 벽돌,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.
-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**2021년 11월을 기준으로** 전년대비 22.7% 증가, 전월 대비 0.0%로 변동 없음.
- 모래 및 자갈의 납품량의 경우에는 **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** 전년 대비 3.7% 감소, 동년 전분기 대비 1.4% 증가.
- 콘크리트의 납품량의 경우에는 **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** 전년 1분기 대비 6.2% 증가, 동년 전분기 대비 4.7% 증가.
- 벽돌의 납품량은 **2021년 11월을 기준으로** 전년 동월 대비 0.3% 감소, 전월대비 3.9% 감소.
-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량은 **2021년 11월을 기준으로** 전년 동월 대비 11.5% 증가, 동년 전월 대비 5.3% 증가.
- 건설자재의 수출입량은 **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** 전분기 대비 수입량은 10.7% 증가, 수출량은 1.9% 감소.

☞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건설자재 가격지수에서 **2021년 11월을 기준으로** 전년대비 모든 작업이 22.7% 상승하였고 전월대비 0.0% 변동 없음. 건설자재의 수입은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10.7% (£532mil) 증가함. 2021년 3분기 무역수지 적자는 전분기 대비 5억 6,700만 파운드가 늘어난 36억 8,700만 파운드로 집계됨.

※ 건설자재가격지수는 2015년을 가격 100을 기준으로 작성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announcements/building-materials-and-components-statistics-december-2021>

## □ 2021년 11월 건설생산량 통계[1/14]

- 통계청(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)에서는 매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.
  -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1년 11월 기준 전월대비 3.5% 증가함(신규공사 +5.7%, 유지보수 -0.2%). 이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 건설생산량 증가율에서 가장 큰 증가률임.
  - 코로나 팬데믹 이전(2020년 2월)과 비교하면 11월의 건설생산량은 1.3%(1억9,700만£)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공사는 1.6%(1억4,800만£) 감소, 유지보수는 6.9%(3억4,500만£) 감소에 기인함.
  - 부문을 기준으로 11월 월간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반시설이 40.9% 증가, 민간 신규 주택이 2.6% 증가, 민간 산업이 11.4% 증가한 것으로 보임.
  - 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2021년 9~11월 기준 2021년 6~8월 대비 1.6% 증가하였으며 신규작업(1.5%)과 유지보수(1.6%)에서 모두 증가한 것에 기인함.
  - 종합적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비수기의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건설작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.
- ☞ 건설생산량 통계기준: 영국 전체 건설작업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2종류인 신규공사와 수리 및 유지보수로 나누고 있으며, 구체적인 공사종류로는 3개의 큰 대분류에 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.

(1) 신규주택(New housing) - 공공주택(public), 민간주택(private)

(2) 그 외의 신규공사(Other new work) - 인프라(Infrastructure), 공공(public), 민간산업(private industrial), 민간상업(private commercial)

(3) 수리 및 유지보수(Repair and maintenance) - 공공주택(public housing), 민영주택(private housing), 주택 외(non-housing)

※ <https://www.ons.gov.uk/businessindustryandtrade/constructionindustry/bulletins/constructionoutputingreatbritain/november2021>

## □ 2021년 11월 영국 주택가격지수[1/19]

- 토지등기국(HM Land Registry)에서 2021년 11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.
- 영국의 11월 주택가격지수의 헤드라인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평균가격은 £270,708이며, 연간 가격변동 +10%, 월별 가격변동은 +1.4%로 전년 및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함.
- 영국의 지역별 가격변동에서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South West는 +2.5%로 가장 큰 상승, London은 +0.2%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임. 전년 대비 South West가 +12.9%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, London은 +5.1%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
- 영국의 부동산 유형별 평균가격에서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+9.8% 상승함. 유형별로는 Detached(단독주택)가 +13.8%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며, Flat/maisonette(빌라/작은 저택)는 +5.1%로 가장 최저상승을 보임
- 영국의 부동산구매 거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현금거래의 평균가격은 £269,693이며 전월대비 +1.2%, 전년대비 +9.2%, 담보대출은 £297,291이며 전월대비 +1.4%, 전년대비 +10%, 최초구매자의 평균가격은 £238,533이며 전월대비 +1.5%, 전년대비 +8.9%, 소유주의 평균가격은 £331,286이며 전월대비 +1.2%, 전년대비 +10.7%를 기록함
- 전반적으로 영국의 부동산가격은 전월, 전년 대비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함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uk-house-price-index-for-november-2021>

## □ 영국과 호주, 인도-태평양 지역에 기반시설투자[1/20]

- 외무영연방부(Foreign, Commonwealth & Development Office)에서 영국과 호주가 인도-태평양 지역에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.
- 이 새로운 합의문은 재해복구, 기후적응기반시설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발프로젝트를 공동수행, 재정 및 기술지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,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투자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함.
- 이 새로운 전략적 기반시설 개발계획(Strategic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Dialogue)은 영국의 외무영연방부(Foreign,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:FCDO)와 호주의 외교통상부(Australia'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:DFAT) 간에 합의되었으며 영국은 2025년까지 연간 최대 80억 파운드의 영국 자금조달을 동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음.
- 이 과정에는 인도의 영국국제투자(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)의 재출범이 포함되며 인도-태평양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고 항구에서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 걸쳐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uk-and-australia-team-up-to-encourage-clean-reliable-and-transparent-infrastructure-investment-in-the-indo-pacific>

## □ 2021년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[1/21]

- 국세청(HM Revenue & Customs)에서는 매월 £40,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함.
- 2021년 12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0,110건으로 전년대비 20.0% 낮고 전월 대비 7.6% 높음.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13,470건으로 전년대비 14.6% 낮고 전월 대비 11.8% 높음.
- 2021년 12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9,760건으로 전년대비 3.4% 높고 전월 대비 4.1% 낮음.
- 2021년 12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1,780건으로 전년대비 7.4% 높고 전월 대비 12.9% 높음.
- 전반적으로 영국의 11월 부동산 거래량은 주택 및 주택 외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감소 및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.

👁️ 주 거 거래량: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거래량  
비주거 거래량: 주거 거래량을 제외한 산업용 부동산, 농지, 숲 등의 부동산거래량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monthly-property-transactions-completed-in-the-uk-with-value-40000-or-above/uk-monthly-property-transactions-commentary>

## □ 디지털 도로로 가기 위한 지능형 가로등 설치[1/23]

- 고속도로청(National Highways)은 자동차 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폐쇄형 모니터와 무선기술이 국가 고속도로 가로등 내부에 간편하게 설치 될 수 있는 키트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어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함.
- 이 기술은 향후에 기존에 기반시설에 설치되어 교통정보를 갱신하고 속도의 제한 및 전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도로 운행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과거에는 대역폭이 전파전송을 제한했지만 5G, IoT 인프라의 구축으로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 카메라와 같은 장치가 가로등에 설치될 수 있었으며, 이 지능형 가로등의 시범운영은 버밍엄 근처의 M40 교차로 부근에서 수행되었음.

- 이러한 기술로부터 얻은 정보는 향후 자율주행 인프라의 관리를 위한 국도전략을 세우는데 활용될 예정임.
- 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intelligent-street-lighting-illuminates-the-way-to-digital-roads-for-national-highways>

□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에 6천만 파운드 지원[1/25]

-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(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)에서는 혁신적인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3,100만 파운드 이상의 정부 자금과 3,000만 파운드 이상의 산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.
- 이 자금은 영국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책정되었으며 총 11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. 이러한 자금 지원은 영국 전역의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이며 연구의 초점은 터빈을 해저에 정박하는 기술, 해저 케이블의 연결 및 기초 솔루션 개발과 같은 영역에 맞추어져 있음.
- 영국은 이미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국가이지만 기존 터빈보다 좀더 깊은 수심에 배치할 수 있는 부유식 터빈은 영국 해안선 주변부 새로운 지역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용량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60-million-boost-for-floating-offshore-wind>

[ 출처 ] \*아래의 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*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department-for-business-energy-and-industrial-strategy>

**Foreign, Commonwealth & Development Office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foreign-commonwealth-development-office>

**HM Land Registry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land-registry>

**HM Revenue & Customs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hm-revenue-customs>

**Ministry of Defence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ministry-of-defence>

**National Highways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national-highways>

**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**
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organisations/office-for-national-statistics>